

우리 교육 우리 미래

현장診斷-내일의處方

42

〈특별취재반〉

澤 先德 剛 琇 宰
鎬 揆 順 淳 然 院
黃 沈 金 洪 申 李

중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는 안역(안일)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출처가 제치못한 각종 기합을 통해 학생들의 군기를 잡는 일을 도맡아 일한다. 그래서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면 체육교사를 호랑이신생년으로 여기기 쉽다.

서울청량리(全龍鎭)교사는 무설치(無設止) 교사에게 속한다. 우선 운동장수업을 할 때도 폭바다를 헤쳐나가는 꼴을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양팔을 휘두를 때 옆사람과 부딪치지 않을 정도면 수업을 시작한다.

높이뛰기, 멀리뛰기 등을 공부할 때는 못하는 학생을 벌세우는 대신 나무로 만든 인체모형을 갖고 원리부터 설명해준다.

全교사는 수업방법을 바꿔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교사중의 하나지만 일제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군대식 발상인 그대로 적용돼 온 과목이 체육이어서 그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체육과목만이 아니다. 어느 과목이든 중고교의 교실에서는 대부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모두에게 익숙한 일방적 강의의 수업대신 새로운 교수방법을 쓰면 여기저기에

「창의적수업」 엄두 못 낸다

“내申손해본다” 학부모 항의

“주입식 강의” 교사 와도 갈등

기다란 읽기 학습을 하면 편할지만 기존의 수업방식 아이들 머지 아우성을 울리는 다른교사와 나뉘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 서 말고 있을 때는 교사만 말했다. 이제 가지고 어떻게 갈라야 생긴다는 것.

한 기존의 수업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수방법의 변혁을 물고줄 촉진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고를 보면 왜 자꾸 사고실용가치를 토해 내는 게 아니라 테이프를 듣고 판적 사고를 길러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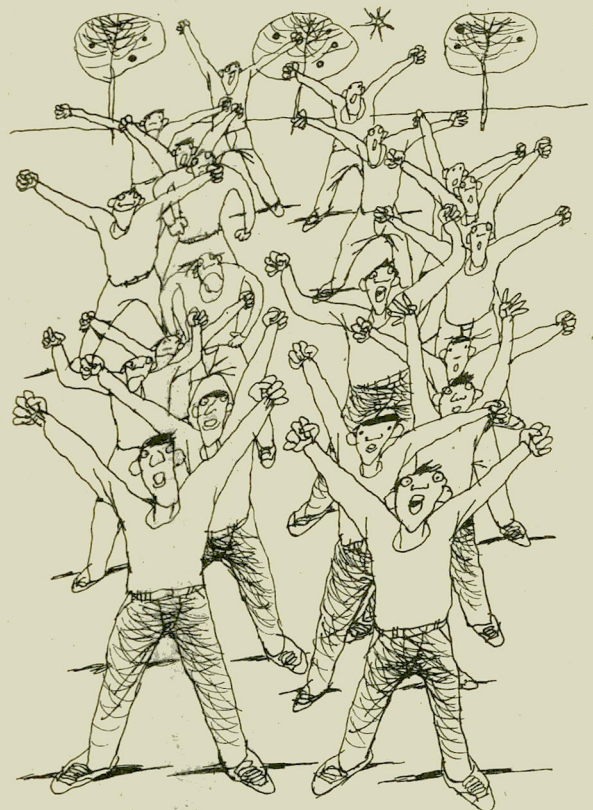


전문가의견

韓明希

교사 재교육-敎具活用 등 「質」관리 강화할 때

과같이 시현을 제형식과 관련된 교육 방법의 전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현만으로는 생각되는 것만 배워가는 것이다.



(그림 白寅洙)

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문법을 설명해주는 기존의 학습방법 말고 소신껏 읽

(본지 대표수·표준화)